



보도 일시	2022. 2. 23.(수) 15:00	배포 일시	2021. 2. 23.(수) 14:30
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

담당 부서	경제정책국 물가정책과	책임자	과장 김승태 (044-215-2770)
		담당자	사무관 김애리 (arkim0814@korea.kr)

홍남기 부총리, 국내 석유수급비축 동향 및 비축유 방출계획 점검 - 울산 석유비축기지 현장방문 -

- 홍남기 부총리는 '22.2.23일(수) 오후 울산 석유비축기지를 방문하여 국내 석유 수급·비축현황과 비상상황에 대비한 방출계획 등을 점검하였음

현장방문개요

- 일시 : `22.2.23(수) 14:00~15:00
- 장소 : 울산 석유비축기지
- ※ 참석자 : 부총리, 기재부 경제정책국장, 석유공사 사장 등

- 최근 국제유가는 경기회복에 따른 수요증가, OPEC+의 생산능력 회복 지연 등 공급측 차질에 더해 최근 러시아-우크라이나 사태 등 산유국 지정학적 리스크가 더해지며 '14년 이후 7년만에 최고치인 배럴당 90불대까지 상승함

* 두바이유(\$/B): (21.10월)81.6 (11)80.3 (12)73.2 (21.1월)83.5 (2.1~22일 평균)91.3 (2.22일)96.0

- 특히 최근 러시아-우크라이나 사태가 긴박하게 전개되면서 국제유가 추가상승 및 수급영향이 우려되는 상황임
- 이에 울산 석유비축기지를 현장방문하여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국제 석유시장 여건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, 국내 석유 수급·비축현황과 비상시 방출계획을 점검하였음

- 이날 홍 부총리가 방문한 울산 석유비축기지는 '21.11.19일 지하공동*이 준공되어 석유저장능력이 650만배럴에서 1,680만배럴로 확대되었으며, 이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는 전국 9개 석유비축기지**, 총 1억 4,600만 배럴 규모의 석유저장능력을 확보

* 원유를 저장할 수 있는 터널형 지하저장시설

** 울산, 거제, 여수, 서산, 구리, 평택, 용인, 동해, 곡성

□ 국내 석유 수급·비축 현황 등 점검결과 **홍남기 부총리**는 현재 국내 원유 도입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, 비축물량도 국내 석유시장의 불확실성에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함

① 도입의 경우 국내 정유사는 '21.12월 8,693만 배럴, '22.1월 9,479만 배럴 등 국내수요에 상응하는 규모(월평균 약 8천만 배럴)를 매달 안정적으로 수입중이고

* 원유 도입물량(만배럴): ('21.8월)8,283 (9)7,863 (10)8,513 (11)8,036 (12)8,693 (22.1월)9,479

▪ 그 중 러시아산 원유 수입 비중은 5.6%* 수준에 불과하다고 밝힘

* 국내 원유수입 비중('21년 기준, %) : (사우디)29.3% (미국)12.4 (쿠웨이트)10.6 (러시아)5.6

② 비축의 경우 정부 비축물량은 약 9,700만 배럴로 추가적인 외부도입 없이 국내수요 106일분(국제에너지기구 기준)을 감당할 수 있는 물량이며

▪ 이는 국제에너지기구 권고 비축물량인 90일분의 약 118% 수준임을 강조

③ 비축유 방출의 경우 미국 등 동맹국간 비축유 공동방출결정에 따라 317만 배럴이 차질없이 방출중('22.1~3월)이며, 국내 수급상황 악화시 방출에도 대비중

□ **홍 부총리**는 에너지 가격·수급 불안정성이 고조되고 있고 러시아-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국제유가가 추가상승하고 수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,

○ 비상수급대응계획을 면밀히 재점검하여 도입 차질물량 파악과 필요시 대체도입*을 개시하고, 국내 석유수급 악화시 비축유 방출 등이 즉시 착수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태세를 당부함

* (석유) 미국·북해·중동산 대체 도입, (석탄) 호주·남아공·콜롬비아 등 대체 도입, (가스) 카타르, 호주, 미국 등 대체 도입, 직수입자 재고물량 파악

□ 아울러 **홍 부총리**는 국내 석유가격이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 상승세*를 보이고 있어 서민의 에너지 비용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

* 국내 휘발유 가격은 유류세 인하시점인 '21.11.2주부터 9주 연속 하락후 1.2주부터 지속상승 중

○ 4월말 종료예정인 유류세 및 LNG 할당관세 인하조치의 연장여부를 3월중 결정하되, 최근 국제 유가상승세가 3월에도 지속될 경우 유류세 및 LNG 할당관세 인하조치의 연장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음

○ 또한, 러시아-우크라이나 사태의 악화 등으로 원자재 가격이 추가상승할 경우 기업의 원가부담 완화를 위해 업계 수요를 반영하여 원자재 할당 관세 인하폭·대상 확대를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언급

